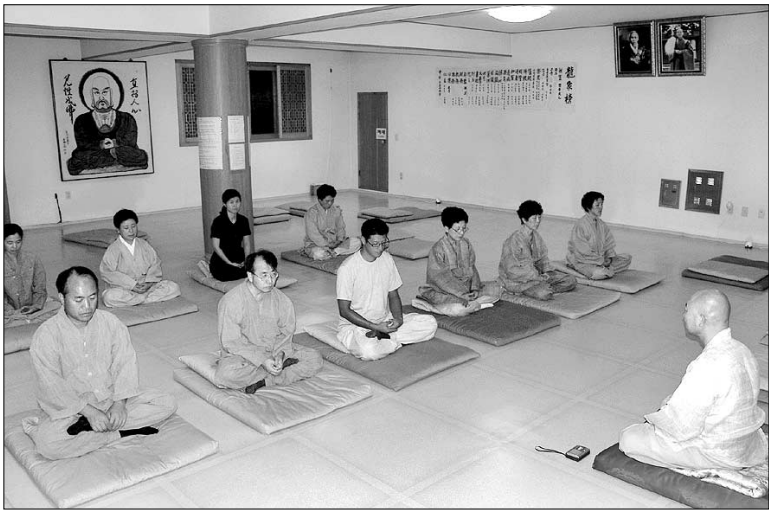


철저한 실참·점검...수행 열기 '활활'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⑭ - 공주 학림사 오동시민선원



공주 학림사 오동시민선원 불자들이 조실 대원 스님의 소참법문을 듣고 있다.

"개구죽죽(開口卽鑄)이라! 입을 열면 그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입을 닫고 앉아 있어야 옳은가?"
 "..."
 오동시민선원 조실 대원 스님이 묻자, 대중들의 답이 없다.
 "입을 열어야 옳은가, 입 닫고 있어야 옳은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옳은가? 허뿌리는 밖으로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 말만 바로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공부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입니다."

#물어라, 답해 주리라
 9월 9일 오후 8시 공주 학림사 오동시민선원. 20여 재가선객들의 50분 좌선이 끝나자, 공장 조실 대원 스님의 화두참구 점검이 이어진다.
 오동시민선원 운영위원장 김일수(48·대전 삼천동) 거사가 첫 질문을 던진다.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해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a.com.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정(情)을 버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 중생심입니다. 정이란 자체는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고(苦)를 낳죠. 정을 여의고 공부해야 온수한 자비심이 나와요. 자비심이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행복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정을 버리고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엔 새벽부터 기차타고 올라온 이 달연(68·대구 만천동) 보살이 묻는다.
 "공부하면서 경계를 뒤집고 또 뒤집어야 안목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뒤집는다는 것은 자기 견해를 달라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시야를 넓혔다 좁혔다 하는 것과 같지요. 경계를 자주 뒤집어야 세계를 보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려면 화두만 들고 앉만 보고 가세요."
 조실스님과 재가선객의 문답은 밤 10시까지 계속 된다. 적당히 두리 뭉실 넘어갈 법도 하지만, 대원 스님은 재가자들의 마음공부 상태를 철저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 경계도 마찬가지로. 참선정진 중에는 대중 전체가 불 뿜는 장군죽비를 파헤칠 수 없다. 졸든 졸지 않든 수행자의 어깨를 어겁없이 두들긴다. 조는 사람은 수마(睡魔)에서 벗어나게 하고, 졸지 않는 사람은 망상 떨지 말고 화두를 들게 하기 위해서다.

#마음의 소화능력' 큰 재가선객들
 그럼 오동시민선원에서 수행해온 재가선객들은 어떤 자기변화를 경험했을까?
 20년 넘게 간혹 수행을 해온 신한수(50·대전 월평동) 거사는 "선 수행은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얻게 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며 "무엇보다도 '주인이 된 돌을 무는 개가 될 것인가, 돌을 던진 주인을 무는 사자가 될 것인가'란 말을 통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부딪치는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됐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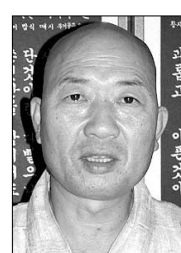
3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오동시민선원으로 첫 출근(을)하는 박현숙(41·대전 어운동) 보살도 마찬가지다.
 "선 수행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게 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떠드는 학생들에게 '조용하라'고만 소리치지, 정작 제 마음이 한없이 시끄러웠던 것을 몰랐던 거죠."
 '한 생각 잘 내고, 잘 써야 한다'는 것을 정진으로 깨닫고 있는 재가선객들은 "잘못 낸 한 생각이 질투 시기 등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늘 생활 속에서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재가 함께 경계·정진
 학림사에는 '상선(上禪)'과 '하선(下禪)'이 있다. 상선은 출가자의 수행처이고, 하선은 재가자들의 정진처다. 한 도량 안에서 출·재가가 함께 정진하고 있는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속세 부처'

■재가자 위한 대원 스님의 조언

"단 1초라도 단도 직입적으로 밀어 부치세요. 그럼 화두가 타파됩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도 10년 안에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두예요. 여기에 답변도 만들지 말고 얼른 깨달아야겠다고 하지 마세요. 책과 글로써 선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사진)은 '화두'인성이 현실생활 속에서도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되면, 반대 방향에 서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본래 면목자리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것이다. 출가자는 100일간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며, 재가자는 1개월에 한번 1주일 철야참선정진을 한다. 출·재가가 서로 경계가 되면서 수행열기를 북돋우며 정진한다.

2001년 개원한 오동시민선원의 수행 열기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철저히 간혹선 화두를 가지고 공부해 자신의 무명심을 타파하고 본래면목을 되찾게 한다'는 대원 스님의 발원이 오롯이 선원 가풍에 담겨져 있기에 그렇다.
 때문에 대원 스님의 공부점검은 수시로 빈틈없이 이뤄진다. 먼저 화두가 없는 사람은 3번배를 회향한 다음에 화두를 받게 하고, 화두가 있는 사람은 108배를 하게 한 다음 점검을 해준다. 공부가 무익은 사람은 평소에도 의심하면 바로 점검해 준다. 보름 단위로는 전체 대중의 공부를 일괄적으로 점검하기도 한다. 방식은 1:1. 시민선원 50여명, 출가자 10여 명이 대원 스님에게 점검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특히 출가자, 결계 입방 대중, 출퇴근 시민 대중이 함께 공부하는 자유로운 공부 분위기는 오동시민선원만의 특징이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대원 스님의 <금강경오가해>는 재가선객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일러주고 있다. (042)825-6505 www.odzen.or.kr

글·사진/공주=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5> 선사들의 안타까운 최후

사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꿩나뉠이해도 전신(全身)사리가 사리종의 백미이다. 왜냐하면 온몸 그 자체가 사리이기 때문이다. 온몸 그 자체가 사리라는 말은 선사가 살아온 과정 그 자체가 모두 사리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운문 선사는 '날마다 좋은 날'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혹 이상적인 열반모습에만 고집한다면 이는 그 선사의 진면목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달마 대사는 독살 당했다고 한다. 그것도 울종 승려인 광통 율사에 의해서. 율사가 어찌 살생을 할 수 있는나고 정말 필적 될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사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는 당시 기록권 종파인 울종과 신홍종파 선종간의 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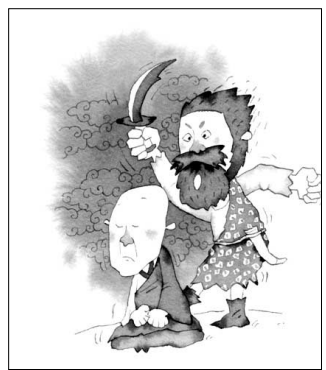
달마가 마지막 관 속에 찔린사리 한 짚을 남겨두고서 표표히 자기의 본고향인 서역으로

승니까?"
 이때 왕이 목을 치니 흰 것이 한 길이나 뿜어 올랐다. 이런 왕에게 과보가 없을 리 없다. 그 자리에서 왕의 두 팔이 저절로 땅으로 떨어졌다.

암두전할(828-887) 선사는 사회적 불안이 원인이 되어 열반한 경우라 하겠다.

임종하던 그 해에 중원 땅에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 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다. 오직 선사만이 남아서 홀로 절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적들이 절에 들어왔다. 흰가 가져가야 하는데 집채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갈 게 없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선사를 칼로 찔렀다.

태연한 얼굴로 앉아서 칼을 받았다. 동시에 큰 소리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열반했다. 그 때 그 소리가 수십리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오백년에 한 사람 날개팔까 하는 고승도 이렇게 도적의 화를 입어야 하는게 중생



독살 당한 달마, 도적에 희생된 암두 선사 사회적 교단적 정치적 이유로 생사 좌우

돌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뒷날 육조해는 선사가 등장하여 당신을 다시금 살려놓았다.

서천 24조인 사자 존자는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희생된다. 모양은 법담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취조 그자체이다.

계법국의 왕이 칼을 빼들고 물었다 "스님께서는 오온개공(五蘊皆空)의 경지를 증득하였습니까?"

당연히 증득했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건 수행의 수준정도를 묻기 위한 물음은 물론 아니다.

"오온개공을 알았으면 생사를 여의었습니까?"

"여의었습니다."
 울거니.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다. 바야흐로 본색을 드러낸다.

"스님의 머리를 베고자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다른 말은 해봐야 소용없다.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머리를 아끼겠

계의 현실이다.
 사회적 교단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행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없다. 그럼에도 선사들은 늘 그 속에서도 항상 몸과 마음이 현실경계에 걸리지 않으려는 삶을 추구해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법장(仁谷法長) 대종사 역시 비록 지형인 심장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마지막 법구(法龜)를 흔쾌히 생명나눔으로 회향하시어 만세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남겨놓으신 '바람'은 입적하신 그 자리에서 전신사리가 되어 후학들에게 법을 설파하고 있다. 먼훗날 누군가 다시 이 걸망을 지고서 천하를 만행하리라.

나에게 바람이 하나 있는데(我有一鉢囊) 중풍이도 없고 또한 밑바닥도 없다(無口亦無底).
 답아도 답아도 남치지 않고(受受而不瀆) 주어도 주어도 비리지 않는구(出出而不空). (법장 스님이 입적 전에 남긴 글귀)

■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문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龍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天氣道場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